

‘또 창고 화재’... 검은 연기·악취에 시달린 광양시민 불만 고조

알루미늄 광재 창고·타이어 부품창고서 잇따라 화재

전남 광양시에서 창고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악취와 유독가스, 불안감 등을 호소하는 시민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전남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양시 태인동의 한 타이어 부품 업체 창고에서 불이 났다.

불길은 3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창고 내 타이어 부품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고무탄 냄새가 인근 주택가를 덮었다.

창고 2개 동 중 1개 동과 부품이 타면서 발생한 악취는 태인동 인근으로 퍼지면서 역한 냄새와 목이 따끔거리는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았다. 오후에는 도심인 중앙동에서도 냄새가 났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화재와 함께 검은 연기가 확산하자 광양시는 마스크 착용과 차량 우회를 안내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다.

앞서 지난 13일 광양항 물류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저장해둔 ‘알루미늄 광재’에 불이 붙었다. 알루미늄 광재는 불이 났을 경우 물로는 끌 수 없어서, 흙으로 덮는 진화 방식을 동원해 일주일 만에 진화했다.

하지만 광양 시민들은 일주일 동안 악취와 유독가스에 시달렸고 각 가정의 창문을 열지 못하거나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진화될 때까지 수일간 연기가 발생하면서 기침, 피부 따가움, 두통, 인후통을 호소하는 시민이 많았다.

광양시는 화재 발생 연기의 유해성 분석에 나섰으나 시민들의 고통 호소와는



26일 오전 전남 광양시 태인동 한타이어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물을 고고 있다.

사진=광양소방제공

달리 ‘유해화학물질 측정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민들은 최근 광양 지역 창고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는 이유와 많은 창고마다 어떤 물건이 보관되고 있는지 등 궁금증을 던졌다.

시민 A 씨는 “연이어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며칠씩 불을 끄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면서 “다른 창고는 또 어떤 물질이 들어있는지, 불안해서 잠을

잘 수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한 주부는 SNS에 “광양항에서 발생한 불을 끈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또 타이어 창고 화재라니, 마스크나 써야겠다”고 썼다.

또 다른 시민은 “광주 타이어 공장 화재 시 인근에 있다가 목이 너무 아팠는데, 광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됐다”면서 “불이 나면 연기와 냄새가 심한 물건을 보관할 때는 업체와 행정기관이 더욱더 신

경을 써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남 녹색연합은 성명을 내고 “광양항의 관리 주체가 성과 중심의 배후 부지를 운영하면서 위험한 폐기물을 방치하고 있다”며 “창고 임대 및 불법 폐기물 반입 관리 감독이 소홀할 경우 지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막대한 대기오염을 유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광주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 개관 1년 만에 ‘예산 부족’ ‘재정난’ 집단 치유프로그램 운영 중단

광주에 설립된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가 개관 1년 만에 일부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하는 등 재정난을 겪고 있다.

25일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에 따르면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의 치유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집단 재활치유 프로그램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하반기부터 중단하고 있다.

중단한 프로그램은 5·18항쟁당과 글쓰기, 사진, 원예, 요리, 난타 등 16개이며 전문 강사가 참여해 주 1회 운영했다. 상반기 동안 110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담과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를 찾아가는 프로그램, 사례관리 등은 정상 운영하고 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는 지난해 7

월 옛 국군통합병원 부지에 들어섰다. 5·18과 제주4·3사건, 여수·순천 10·19사건 등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자와 가족의 치유를 위해 1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설립됐다.

운영비는 정부와 광주시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해 올해 예산 22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광주시가 국가 100% 지원을 요구하며 올해 예산 11억원을 마련하지 않아 프로그램 일부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관계자는 “광주시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고 있어 일부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며 “내년부터는 관련 법 일부 개정으로 인해 국가 부담이 늘었기 때문에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민규 기자

광주 도심서 만취운전 외국인, 징역형 집유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 사고를 낸 40대 외국인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47)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광산구 도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08%의 만취 상태로 1km 가량 자가용을 몰다가 앞서 정차한 B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추돌, SUV탑승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들이받은 SUV에는 운전자 B씨

를 비롯해 총 3명이 타고 있었고 이들은 사고 충격으로 각기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는 얼굴이 붉어진 채 횡설수설하며 몸을 비틀거리며 정 도로 만취 상태였다.

재판장은 “A씨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했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 다만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A씨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 모두와 합의한 점, 국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송현근 기자

아파트 우수관 누수로 집안 물바다... 세대주 손해 승소

아파트 공용시설인 우수관(雨水管·빗물 배기관) 노후화로 인한 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주가 입주대표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일부 승소했다.

광주지법 제6민사부(항소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입주인 A씨가 B아파트 입주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입주자대표회의는 A씨에게 15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선 1심이 인용한 손해배상액 2070여만원보다는 감액했지만 거듭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광주 북구 소재 B아파트 한 세대

“공용시설 관리 책임” 입주자대표회에 손해 청구

1·2심 일부 승소... ‘배상책임 80% 위자료 기각’ 감액

에 사는 입주자다. A씨의 집은 2023년 6월 주방 바닥에서 물이 발등 높이까지 차오르면서 거실까지 침수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현장 확인까지 했으나 누수 원인을 찾지 못했다.

같은 해 7월 또 다시 세대 내 누수 피해가 발생했고, 사실 누수 탐지업체는 ‘아파트 우수관 노후화’에 따른 연결부 이탈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인다고 파악했다.

이에 A씨는 아파트 공용시설 유지·보수·관리 책임 주체인 아파트입주자대표

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A씨는 보수 공사비, 침대 매트리스 세척비, 가전제품 재설치 비용, 보수기간 중 숙박비·이전비에 위자료까지 2100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1심은 보수공사비에 포함된 입주청소비 40만원을 제외한 A씨의 청구 금액을 대부분 인정했다.

항소심 역시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우수관은 배수 설비로서 공용 부분이고, 우수관의 일부 이탈로 인한 누수 사고 발

생 등을 미뤄 볼 때 민법상 공작물책임으로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건물 누수 특성상, 원인을 찾기 쉽지 않다. 실제 누수 원인을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해 비로소 찾기도 했다”면서 “누수사고가 사용 승인 받은 지 9년이 넘게 지나 발생한 점,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관리비 등을 통해 입주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배상 책임을 80%로 제한한다”며 감액 취지를 설명했다.

A씨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거나 입주자대표회가 그 같은 특별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오권철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525-9775 FAX (062) 528-4566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